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경기지역 성남-부천-화성-의정부-안양-용인-오산  
컨소시엄 '경기다양성 다다(多多) G-Diversity'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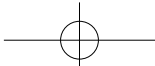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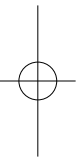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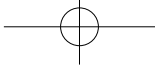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컨소시엄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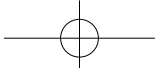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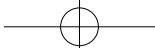
수행  성남문화재단  
SUNGNAH CULTU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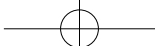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 | club.sarangbang

 Healthy Happy Family  
한국다문화가족연구원  
www.hiz1.kr

 성남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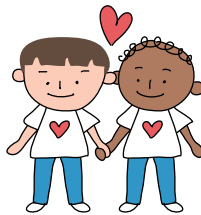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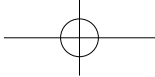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경기지역 성남-부천-화성-의정부-안양-용인-오산  
컨소시엄 '경기다양성 다다(多多) G-Diversity'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편집인           하동근  
기획 총괄       고성영  
기획 진행       김준원  
디자인/인쇄     필그래픽스  
발행일           20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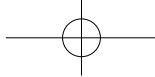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 성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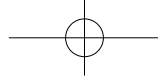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다문화..사랑방에서 이웃를 만나다”



다문화...,  
사랑방에서 이웃를 만나다





## CONTENTS

### 05 I. 사업 개요



- 06 1. 개요
- 08 2. 추진배경
- 11 3. 사업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 13 II. 사업 내용

#### 14 “다문화예술아카데미” 그들의 사랑방이 되다!!

- 14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4 2) 무지개다리 페스티벌
- 27 3) 2013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 27 4) 기타

#### 30 경기다양성 다다(多多)“교류협력 프로그램”

- 30 1) 역량강화 워크숍
- 31 2) 경기라운드(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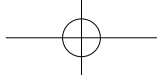
#### 32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지원활동

### 35 III. 사업 성과 및 영향

- 36 1. 사업 성과
- 38 2. 아쉬운 점
- 39 3.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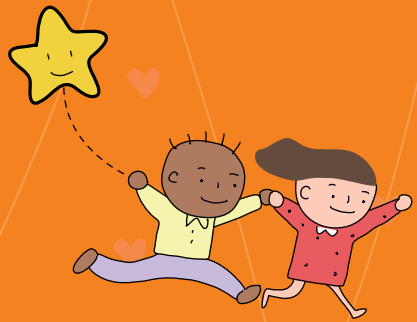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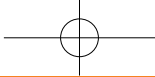
### 41 IV. 참여자 후기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3 프로젝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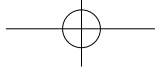
## 사업 개요

1. 개요
2. 추진배경



## 1. 개요

- 사업명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기 간 : 2013년 5월~11월
- 장 소 : 시민사랑방 교육실, 성남YWCA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컨소시엄
- 수 행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성남YWCA
- 목 적
  - 이주민 가정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향수 증진
  - 문화를 통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네트워크 구축
  - 생활예술 영역의 문화다양성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모델 마련
  - 다양한 문화예술 표현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향상
- 참여주체
  - 이주민 가정 여성 및 자녀 168명(성인 81명, 아동 87명)
    - 1팀(성인 : 61명 / 아동 : 79명)
    - 2팀(성인 : 20명 / 아동 : 8명)
  - 성남시 생활예술 네트워크(사랑방문화클럽) 11개 회원클럽 소속 회원 23명
  - 이주민 지원기관(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성남YWCA) 및 자원봉사단(대진고 학생 등) 50여명
  -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 및 경기컨소시엄 6개 재단(부천, 화성, 용인, 의정부, 안양, 오산)



○ 사업내용

- 선주민 문화동호회(사랑방문화클럽)의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5월~11월)

– 1팀(시민사랑방 교육실)

구 분	노래강좌	한지공예	미술강좌
일 시	매주 14:00~15:00	매주 둘째, 넷째주 15:00~16:30	매주 첫째, 셋째주 15:00~16:30
강사진	이경이, 김성미	오은진, 김성은, 백승주, 오미숙, 황해옥	박봉덕, 조진순, 장윤아, 유정휘, 구형모

– 2팀(성남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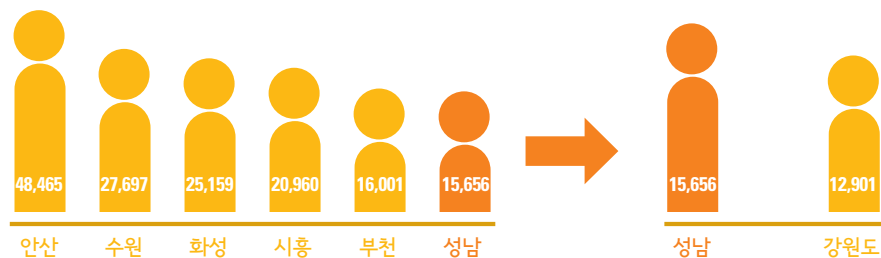
구 분	한지공예	다종이공예	미술강좌
일 시	매주 첫째주 10:00~11:30	매주 둘째주 10:00~11:30	매주 셋째, 넷째주 10:00~11:30
강사진	이미란, 허윤선, 송정숙	강명자, 이승원	김해수, 이정희, 조현숙, 정수연, 진숙종

- 생활예술 네트워크 활동(5월~12월)
  - 선주민 문화동호회(사랑방문화클럽)와의 상시적 연계활동(작품발표회 실시)
  -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행사 참여
- 경기 컨소시엄 교류협력 프로그램(7월~10월)
  - 지역 내 문화기획자들의 네트워킹 자리 마련 및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7.12)
  -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사업기관의 역할 및 사업수행 방향제시를 위한 <경기라운드>(7.25)
  - 7개 컨소시엄 지역 내 이주민 자조모임들의 축제 <무지개다리 페스티벌>(10.12)

## 2. 추진배경

### 1)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은 이주민 거주지역

- 2012년 등록 외국인 기준 성남시 외국인 주민수는 15,656명으로 조사
- 경기도 전체에서 6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강원도 전체 인구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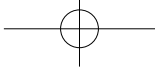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남시 위탁기관), 우리다문화가정센터,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등이 다양한 이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중

### ※ 성남지역 내 이주민 지원사업 기관 및 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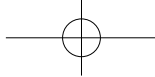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위치	실무자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1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시 수정구	박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여성 의료지원사 양성교육</li> <li>• 다문화 도서관 운영</li> <li>• 다문화교육(한국어, 요리, 컴퓨터)</li> <li>• 다문화 직업교육</li> <li>• 다문화개인 및 가족 상담</li> </ul>
2	우리다문화가정센터	성남시 수정구	이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한국어, 요리, 컴퓨터)</li> <li>• 한국문화체험(연 4회)</li> <li>• 다문화가정 아동교육(교과 보충, 정서교육 등)</li> <li>• 무료진료 운영(매월 둘째주 일요일)</li> <li>•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발표회, 세미나 등)</li> <li>• 다문화연구</li> </ul>





연번	기관명	위치	실무자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3	성남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문영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어교육(단계별 진행)</li><li>• 다문화가족통합교육</li><li>•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li><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li>• 다문화개인 및 가족 상담</li><li>• 멘토링, 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 운영</li><li>• 다문화 인식개선 운동</li><l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li><li>•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li><li>•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li><li>• 언어영재교실(베트남어)</li></ul>
4	성남이주민센터 (구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성남시 수정구	장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상담, 법률</li><li>• 다문화교육(한국어, 피아노, 컴퓨터, 놀토학교, 요리강습)</li><li>• 한국문화체험(연 10회)</li><li>• 내친구아시아(이주민의 문화와 음식 소개하는 행사)</li><li>• 무료진료 운영(매주 일요일)</li></ul>
5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김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교육 (한국어, 필라테스, 컴퓨터, 영어, 홈패션, 보육, 요리)</li><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li>• 한국문화체험(연 2회)</li><li>•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발표회, 세미나 등)</li><li>• 무료진료 운영(치과)</li></ul>
6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수정구	이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양육능력강화프로그램, 자녀역량강화프로그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li></ul>
7	은행1동복지회관	성남시 중원구	조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교육(한국어, 요리, 오카리나)</li><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li>•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나들이, 문화체험)</li><li>•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김장김치, 후원물품)</li></ul>
8	태평2동복지회관	성남시 수정구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교육(한국어, 요리, 마음공부)</li><li>•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문화체험)</li><li>•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고국방문지원)</li></ul>
9	상대원3동복지회관	성남시 중원구	구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교육(한국어, 요리, 마음공부)</li><li>•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문화체험)</li></ul>

연번	기관명	위치	실무자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10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성남시 중원구	주은경	• 정신건강증진사업
11	KT&G복지재단 성남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박은희	• 다문화교육(한국어)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문화체험)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식생활지원)
12	성남YWCA	성남시 분당구	장옥현	• 다문화교육(한국어, 가족 통합교육) • 다문화가정 상담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문화체험, 사회적응) • 찾아가는 다문화공연 및 교육(인형극, 강사지원)
13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시 분당구	조화주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 분당구	양선정	• 다문화교육지원(한국어 교재)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문화나눔, 문화체험)
15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봉사관	성남시 수정구	유진미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김장김치, 후원물품)
16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 수정구	김은혜	• 다문화교육(미술)
17	성남다문화축구팀 하나FC	성남시 분당구	-	• 다문화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18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성남시 분당구	정천석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캠프, 문화체험) • 다문화연구
19	중원도서관	성남시 중원구	박선미	• 다문화교육(한국어)



## 2) 성남시는 생활예술 활동네트워크 구축 모범지역

-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성남시 생활예술 네트워크구축과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육성과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옴
  - 2006년 조사를 통해 약 1,100여개의 시민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민이 자발적 시민문화예술 동호회활동을 통해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모델을 개발

## 3. 사업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 1) 사랑방문화클럽(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 ※ 이주민 여성의 문화 참여활동을 위해서는 자녀 동반이 필수. 따라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주민 결혼 여성의 부담을 덜어줌
- 이주민 자조모임의 사랑방클럽축제 공연 및 전시 참여 지원
- 이주민과 선주민 참여자 온라인 교류 모임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카페 운영  
(<http://cafe.daum.net/DaSaRang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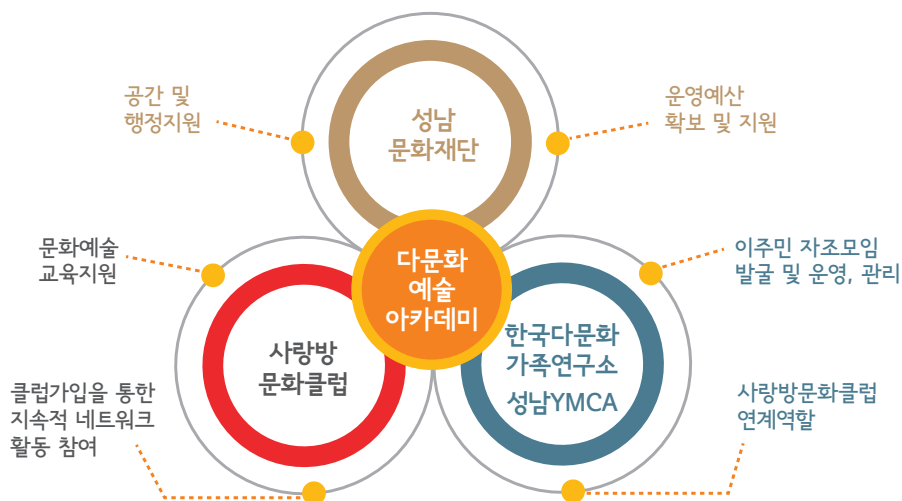
### 2)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 성남YWCA

- 이주민 자조모임 발굴 및 지원
- 이주민 자조모임과 사랑방문화클럽 연계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 이주민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돌봄을 실시하여 이주민 결혼 여성의 부담을 덜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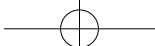


### 3) 성남문화재단

- 사업 기획, 예산 및 행정지원
- 각 사업 참여주체 간 의견 조율, 요구사항 해결 등 매개자 활동 지원
- 성남아트센터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등 시설 지원
- 지역 내 이주민 환경 및 자조모임, 다문화 대상 사업기관 및 단체 등 기초환경연구조사 실시
- 이주민 자조모임 지원단체,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등 사업 참여자 간 의견 조율 및 요구사항 해결(매개자 역할 수행:문화기획부 사랑방문화클럽사업 담당자 3명이 지원)
- 재단이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사업수행단체의 결과 및 정산 보고 등 행정 부담을 덜어줌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협력 네트워크 모델★



## 사업 내용

“다문화예술아카데미” 그들의 사랑방이 되다!!

-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2) 무지개다리 페스티벌
- 3) 2013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 4) 기타

경기다양성 다다(多多) “교류협력 프로그램”

- 1) 역량강화 워크숍
- 2) 경기라운드(좌담회)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지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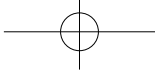
## “다문화예술아카데미” 그들의 사랑방이 되다!!

###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월~11월)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랑방교육실(시민회관 지층)과 성남YWCA교육실 2곳에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노래, 미술, 한지 및 닥종이공예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노래(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미술(분당해드로잉, 늘미랑, 하늘빛아뜰리에, 중앙수채화, 도화지애, 르빠레프, 아름아띠 등 7개클럽), 한지 및 닥종이공예(한뫼 한지공예, 예랑한지, 수미희 등 3개클럽)강좌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업 및 작품발표회, 축제 등 다양한 활동내용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자료를 제작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랑방’에서 놀다가듯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결혼 이주민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와 다문화여성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성남YWCA에서 이주민 자조모임을 발굴하여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문화재단에 연결시켜 주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 선주민의 참여를 보다 높이기 위해 다문화자원봉사단을 조직,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는 결혼 이주민 여성 81명과 자녀 87명이 참여하여 총 39명이 수료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20여명의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수의 여러 회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도 담당 실무자 2명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주민 여성들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단 5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은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지원을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3명과 문화정책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예산 및 행정 지원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클럽 간 활동을 매개하고, 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참여클럽 소개



### 한국다문화 가족연구소

2009년 3월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탐방, 다문화 공연활동 지원, 가족자원봉사활동, 가족캠프활동, 교재발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학술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



### 분당해드로잉

사람의 몸짓이 보여주는 휴머니티를 드로잉하면서 서로의 삶 이야기를 소통하며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술문화발전에 동참하는 인체크로키 미술 동아리



### 늘미랑

취미로 시작한 일련의 작업들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미, 전문작가 배출 및 사회 재능봉사를 통하여 친목을 다지며 자아실현을 위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미술 동아리



### 하늘빛 아뜰리에

2007년에 창립하여 주민자치센터, 중앙공원, 서울대병원, 성남아트센터 등 전시봉사활동을 하며 2011년과 2012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청소년 미술수업과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미술수업 활동을 하였음



### 중앙수채화

중앙수채화는 2002년에 창단, 총 2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주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우들에게 미술교육봉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로 10주년 전시회를 여성문화회관 갤러리에서 가졌다.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서울성곽올레길, 덕수궁미술관 등을 방문하면서 회원들과 단합과 재출전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도화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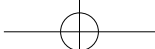
30,40대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아크릴화로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는 순수 회화 동아리



### 르빠레뜨

2012년 창단하여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클럽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미술 동아리이다.





### 아름아띠

아름아띠는 2008년에 창단하였으며 클럽명이 의미는 아름다운 친구라는 뜻이다. 아름다운 친구들이 수채화 모임을 위해 만들었으며 다양한 수채화 표현들을 추구하는 미술 동아리



### 한뼘 한지공예

한지가 좋아서 모여든 회원들이 순수한 작품세계에 빠져 어느덧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된 클럽이다. 일반 취미생활부터 전문가과정까지 한지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지함공예, 한지그림, 한지인형, 한지버닝 과정과 골판지공예, 비즈니스 북아트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예랑한지

한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내 손길을 따라 여러 가지 은은한 빛깔의 한지를 조합하다 보면 나만의 빛을 담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나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은은한 빛을 담고 자연을 담아내는 한지공예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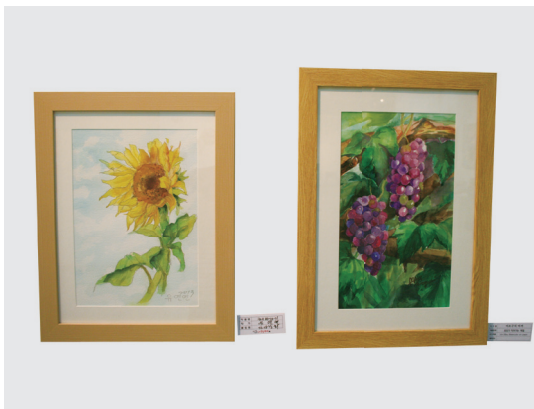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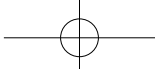
### 수미회

다종이인형 만들기 클럽으로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다종이인형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인내심을 가져야만 작품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1팀 미술 프로그램

분당해드로잉, 하늘빛아뜰리에, 중앙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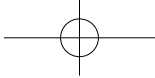
1팀 노래 프로그램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 1팀 한지공예 프로그램 한뼘 한지공예





## 2팀 미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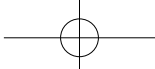
늘미랑, 도화지애, 르빠레뜨, 아름아띠





## 2팀 한지공예 프로그램 예랑한지





## 2팀 닥종이공예 프로그램

수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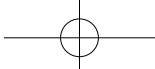
## 2. 무지개다리 페스티벌(10. 12)

매년 가을에 열리는 '사랑방클럽축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예술적 기량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방문화클럽의 화합과 한 해 성과를 총 망라하는 발표의 장이다. 사랑방클럽축제 개최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들은 축제 TF팀을 만들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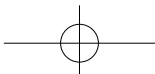
2013년 제7회 사랑방클럽축제는 기존에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한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야외행사로 진행한 축제였다. 또한 처음으로 〈무지개다리〉 사업과 연계, 7개 지역의 이주민 자조모임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의가 남다른 축제였다. 이번 축제에는 성남 지역 내 결혼이주민 여성들로 구성된 태국, 베트남 전통춤을 비롯해서 난타 공연팀이 공연을 진행하였고 부천의 태국전통춤, 안양 이주민 2세들로 구성된 합창공연, 의정부 베트남 결혼이주민들로 구성된 합창공연, 오산의 연극공연, 화성의 이주민 2세 밴드공연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세계 전통악기 30여개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비누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져 성남 지역 내 이주민들과 일반시민들 약 400여명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즐기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문화예술아카데미의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이 그린 그림과 한지 및 닥종이공예 작품들을 성남아트센터 전시공간에서 사랑방문화클럽들과 함께 사랑방클럽전에 참여, 공동 발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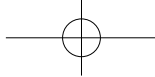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무지개다리 페스티벌 (2013. 10. 12)





# 제7회 사랑방클럽축제 사랑방클럽展 (2013. 10. 7~13)





### 3. 2013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2013. 12. 14)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은 12월 14일 오후 3시 시민사랑방 교육실에서 수료식을 갖고 7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동안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81명의 결혼 이주민 여성 중 3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한 6명(1팀 4명 / 2팀 2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료증과 상장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정길선 위원장이 수여하였다.

수료식에는 그동안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에 참여한 이주민 여성들을 비롯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자원봉사자,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사업담당자들이 참여해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동안 함께 한 활동들을 축하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하며 올 한 해 활동을 마감하였다.

###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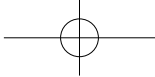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다문화예술아카데미의 미술클럽들은 다문화예술아카데미활동을 계기로 클럽 간 연계활동을 더욱 넓게 펼쳐나갔다. 특히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구성된 다문화 미술클럽 <다사랑회>는 8월 26일~31일까지 성남시청 홍보관 갤러리 '공감', 9월 6일~28일 '시민사랑방 전시실 및 카페 드 노피 갤러리'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져 그동안의 같고 닦았던 숨씨를 마음껏 펼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다사랑회展 (2013. 8. 26~31)





## 세계비빔축제 (2013. 10. 6)

또한 10월 6일에는 성남문화예술지원금 교부사업으로 〈세계비빔축제〉를 진행하였다. 사랑방문화클럽과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수정구어린이집연합회가 협력, 지원하여 진행했던 사업으로 사랑방클럽회원들이 다문화가족 대상 난타와 장구 수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춤 수업으로 통해 발표회를 가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 전통놀이 및 악기, 나라별 국기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에게 가족사진과 가훈족자를 제작해 증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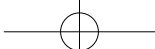


## “경기다양성 다다(多多)” 교류협력 프로그램

### 1. 역량강화 워크숍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외에도 경기컨소시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7월 12일 진행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워크숍>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자리로써 많은 지역 문화기획자들이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의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올바른 사업방향 제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와 한국생활 적응기 등을 함께 공유하며 이주민들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2. 경기라운드 (좌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전문가 및 관련기획자들을 초청,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점 및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문화재단 및 문화다양성 사업기관의 역할 및 사업수행 방향 제시를 위한 <경기라운드\_좌담회>를 7월 25일에 실시하였다. 다문화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및 철학이 배재된 사업 수행 등 다양한 개선점들이 도출되었고 향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 제도개선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화재단의 역할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sup>1)</sup> 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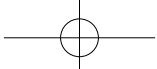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구성, 이주민 여성과 자녀의 문화활동을 지원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프로그램 실행 시, 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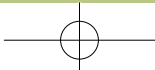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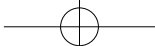
- 경찰대학 폴라리스봉사단
- 백석대학교 자원봉사단
- 대진고등학교 나눔이봉사단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봉사단
- 성복중학교 다사랑봉사단
- 분당파랑새봉사단(한솔고, 늘푸른고)
- 샛별중, 수내중,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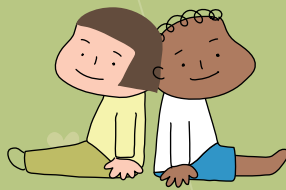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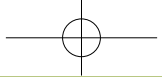
또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민 가정의 한국문화체험 등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주민 가정 여성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1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함.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다문화가족 연구학술활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21.kr](http://www.hi21.kr)) 및 <http://blog.daum.net/brights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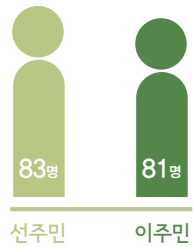
## 사업 성과 및 영향

- 1. 사업 성과
- 2. 아쉬운 점
- 3. 향후 추진계획

## 1. 사업 성과

### 선주민과 이주민 참여 현황

○ 총 참여자 : 1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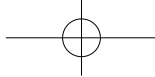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구 분	참여자 수	비 고
선주민	83명	강사진 23명 및 자원봉사자 60여명 등
이주민	81명	아카데미 수강생 81명(결혼이주민)
총계	1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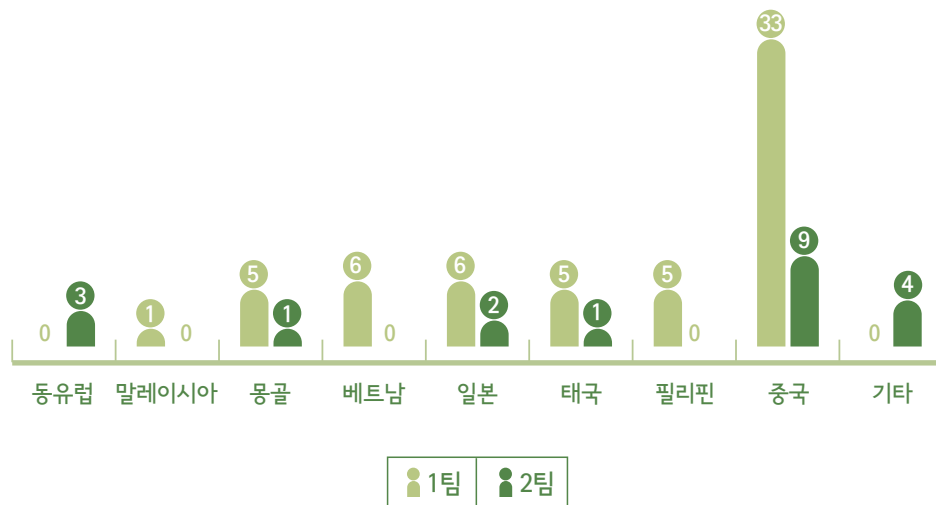
### 수혜자 현황

○ 이주민 가정 여성 및 자녀 168명 참가(성인 81명, 자녀 87명)

출신국적	1팀	2팀	총계
동유럽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등)	0명	3명	3명
말레이시아	1명	0명	1명
몽골	5명	1명	6명
베트남	6명	0명	6명
일본	6명	2명	8명
태국	5명	1명	6명
필리핀	5명	0명	5명
중국	33명	9명	42명
기타	0명	4명	4명
총계	61명	20명	81명



## 나라별 이주민 현황



### ○ 수료자

- 총 39명 수료(1팀 31명 / 2팀 8명)
- 우수상 6명(중국 2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필리핀 1명)

## 주요성과

### ○ 타 이주민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통한 새로운 이주민 지원사업 모델 구축

- 생계혜택 마련 및 공연&문화시설 할인혜택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취미생활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 자발적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조모임) 및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운영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공존 추구

## ○ 문화예술을 통한 선주민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기회 확대

- 생활예술영역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확산의 준거모델’ 제시  
→ 문화예술 동아리를 통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환경 조성

## ○ 지역 내 이주민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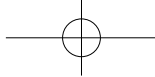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한 사업 참여와 신규클럽(3팀) 가입 및 활동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에게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  
→ 문화다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중요 추진사업으로 발전됨.
- 재단 내에서도 생활예술과 문화다양성 활동이 연계되는 정책과 사업 확대를 모색
- 지역 내 이주민 관련 사업 기관 및 단체에서도 다문화예술프로그램의 좋은 본보기 사업으로 간주하여 공동프로그램 진행 협의 및 추진 요청

## 2. 아쉬운 점

### 1) 이주민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역량이 부족

- 직장, 잦은 이사,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이주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에 장애
- 6개월 가량의 교육을 통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만큼의 기량향상 기간이 부족
- 동호회의 타 회원과 수준 차이로 인해 동호회 활동이 저해. 이러한 문제로 원래 계획과 달리 이주민이 선주민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2) 결혼이주민에게 편중된 문화사업 진행



-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복지 혜택 및 관련 정책 부재
  - 귀화신청 완화 및 취업 환경개선 등 제도적 지원책 개발 및 개선 필요
- 이주민 2세들에 대한 지원제도 및 문화정책 부재
  - 중도입국자녀들의 한국생활 정착 및 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절실
  - 선주민 아이들과의 차별 및 인권문제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대두

### 3. 향후 추진계획

#### 1) 이주민 자조모임 발굴 및 사업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환경연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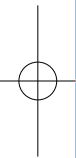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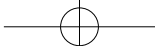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지역 내 대학 유학생 / 판교테크노밸리 외국인근로자 및 연구원 등에 대한 데이터 조사 및 사업 유입 등 현황파악
- 기존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자조모임 개발 및 관리

####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 신규사업> / 이주민 2세 및 청소년 대상 <인권강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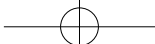
- 결혼이주민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문화혜택 제공을 위한 이주민 관련 사업
- 교육청과 연계, 이주민 2세 및 선주민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인권강의 프로그램 제공

#### 3) 문화다양성 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대상 및 프로그램 개발

- 기존 다문화관련 사업에만 치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다양성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른 범주안의 대상도 문화다양성에 포함
  - 신도심 및 구도심에 의한 문화격차 및 생활격차 해소정책
  - 지방방언 등 지역 문화 보존에 대한 문화다양성 사업 필요







참여자 후기

## 이주민 여성 참여자<sup>2)</sup>

### 무제

전은혜 (중국, 여,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팀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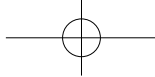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저는 남편 일 때문에 2011년 7월에 중국에서 왔어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못하고 한국문화도 잘 몰랐어요. 친구도 없어서 항상 집에 있었어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요. 한국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찾았어요. 그 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외국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참가했어요. 한국요리교실도 몇 번 가서 빵하고 한국정통요리를 배웠어요.

특히 성남YWCA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씩 한지공예를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닥종이공예를 배울 수 있어요. 모두 무료로 배웠어요. 정말 즐거워요.

한지공예를 배울 때 한국전통 문화도 알아봤어요. 예쁜 필통, 작은 장식품 등 한국전통 한지도 만든것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것들은 모두 아름답고 실용적이었어요.

닥종이를 이용한 인형도 만들었어요. 삼 개월 동안 계속 이 인형만 만들었어요. 다른 재료가 없어서 한지하고 닥너무만 그냥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장 한장 붙여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색의 생 한지 인형의 입, 코, 눈, 귀, 손, 몸을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옷도 자기 상상한대로 디자인 해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희 집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귀엽고 예뻐요.

2 이주민 참여자 수기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DaSaRangg/>)에서 볼 수 있음. 본 수기는 이주민 참여자가 직접 쓴 것으로 오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부정확하나, 이에 대한 교정 없이 그대로 수록했음.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미술이에요. 저는 십여 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잘 못 그려요. 그러나 미술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빨리 높아졌어요.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스케치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렸어요. 특히 수채화는 제가 가장 좋아해요.

올해 10월에 제7회 사랑방 문화 클럽 축제중 우리 작품도 전시했어요. 이번 축제는 성남 아트센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저와 같은 외국사람의 작품도 여기에서 전시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반 친구들과 우리 가족과 다 이 전시회 가서 구경 어요. 저도 전시회에서 본인의 작품을 사진을 찍은 후에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국가" 라고 친구와 부모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 수업이 이미 끝났지만 저도 집에서 자주 그림을 그려요. 저의 취미가 됐어요. 다음에 이 행사가 또 있으면 꼭 참가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



##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 참가 소감문

림슈 내 (말레이시아, 여, 다문화예술아카데미 1팀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저는 다문화 가정 림슈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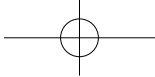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시민회관 아트홀에서 다문화예술아카데미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다문화 예술프로그램으로 노래 배우기, 미술그리기, 한지공예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 두명 데리고 가서 배웠습니다. 박봉덕 미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사진 그림을 보고 저희들 그림을 가르쳐주셔서 저희들 모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갤러리와 시민회관 아트홀,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저희들의 그림 전시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정천석 소장님!

저희들한테 세계문화비빔축제와 다문화노래자랑대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에서 열린 세계문화비빔축제에 참석하였고, 분당구청 사랑방클럽축제에도 참석하여 여러 나라의 전통무용공연을 보고 유치원 아이들의 춤공연과 여러 아이들의 불력만들기, 세계악기 체험, 세계 민속놀이, 비빔밥 먹기에 저는 우리 딸, 우리아들, 우리남편, 우리시어머니님과 함께 참석해서 즐거웠습니다. 이경이 노래 선생님이 노래방 반주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신나게 노래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열린 세계문화비빔축제에서 저희들 노래 자랑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노래 불러서 많은 사람들 감동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국민속촌 탐방에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가족도 시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생 봉사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경찰대학생 봉사자들이 저희 아이들과 마음껏 놀 것 만들어 주고, 같이 식사하고, 식물원에서 꽃도 보고, 옛날 생활과 가구들을 보고 아이들은 문화와 역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노래 선생님, 미술 선생님, 오은진 한지 선생님들! 저희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학생들 저희 아이들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항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한국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 참가 소감문

### 펠라 & 임동은 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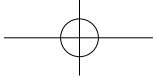
(필리핀, 여, 다문화예술아카데미 1팀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저는 한국 · 필리핀 가정 펠라 카후컴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빠 임동은이고, 아들은 씩씩한 어린이 임선민입니다. 먼저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을 마련해 주신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정전석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항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림수내 다문화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3년 약 2년 동안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에 다녔는데, 과목으로 노래연습, 미술, 한지공예 이렇게 공부를 하였답니다.

올해 5월에는 한국민속촌 민속박물관에도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노래도 배웠답니다. 노래교실 이경이 노래선생님과 지도 선생님이 나비소녀, 뿐이고 노래도 가르쳐 주셨답니다. 또한 세계문화비빔축제에 참석하여 세계문화체험으로 세계악기 체험, 세계놀이 체험, 블록쌓기 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대회에서 노래도 불렀으나 그만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서운한 점도 있었답니다. 다음에 노래자랑에 참석하면 더 열심히 해서 입상하여 '대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술을 지도하신 박봉덕 선생님과 지도 선생님의 수채화 그림그리기와 미술전시회를 성남시청 청사에서 하였습니다. 훌륭한 전시회도 감상하고 다과회도 베풀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한지공예 오은진 선생님과 지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한지공예 공부도 열심히 하여 무사히 마치고 나니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고 싶



어집니다. 물론 풀칠이 다소 서툴러 헤매기도 하고나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우리 아들 임선민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봉사해 준 형, 언니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데 대해 너무 너무 감사하였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작년보다 다문화가정 참석자 분들이 적게 참석해서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쉽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식구들 내년에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하여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발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네요.

끝으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잘 이끌어 주시고 빛내주신 정천석 소장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다. 다문화가정 펠라 카후کم 가정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 참석한 모든 가정의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문화가정 식구 모두 사랑합니다. 화이팅!





## 다문화예술포럼 활동 참가 소감문

**미조구치 마미**

(일본, 여, 다문화예술포럼 1팀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저는 일본사람 미조구치 마미입니다.

이번 다문화예술포럼에서 노래나 수채화그리기, 한지공예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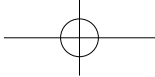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특히 수채화는 저한테는 평소에 가질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전시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도 하게 됐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노래도 재미있게 연습하고 불렀지만 실력이 없어서 노래자랑대회는 좋은 성적이 나질 않아서 좀 서운했습니다.

한지공예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할일이 많을 때가 있어서 참석  
못한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정보주시면 참석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문화예술아카데미와 함께 한 1년

서단 (중국, 여, 다문화예술아카데미 1팀 프로그램 수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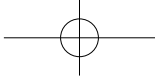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올해는 2년째 다문화예술아카데미와 함께 한 추억을 생각해봅니다. 그림 그리는 실력도, 노래하는 즐거움도,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의 키와 생각주머니도 함께 성장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가르치시는 이경이 선생님덕분에 박치인 저도 노래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링선수이셔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기 없으신 날에 꼭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지공예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비즈니스 우먼이신데 돈을 벌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미니액자, 미니거울, 네모접시, 미니보석함을 열심히 만들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들은 크레파스만 쓸 줄 아는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치느라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케치하고 지우고, 다시 스케치하고 지우고, 물감 칠하고 다시 지우느라 다문화회원 가족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과 우리들의 미술작품을 시민의 회관에서, 시청에서, 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전시하니까 마치 나도 화가인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ㅎㅎ 시청광장에서 노래자랑을 열어 많은 회원들은 출전하셔서 좋았고, 또 몇분 상도 타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이번 연초에 고향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연구소 소장 정천석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컴퓨터도 기증해주신 덕분에 2명 학생을 더 가르치게 되었구요. 마침내 조진순 선생님께서 부동산사장님이셔서 좋은 정보를 가르쳐주셔서 판교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감사^^) 그런데 당첨된 후에 이사갈까말까 갈등 많이 했습니다. 구형모



선생님과 미술전시회 당번 같이 하면서 선생님께서 조언과 기준을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조진순 선생님과 박봉덕 팀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왜 고민하냐고, 맹모삼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교의 새 아파트에 깔끔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네를 타려고 두 시간 줄을 썼던 아이들은 지금은 매일 두 시간씩 더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ㅎㅎ

아이들에게는 작년의 청소년수련관보다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놀아준 고등학생, 중학생 형, 누나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민지학생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둘째 우하가 얼마나 언니를 잘 따르는지 언니가 아파서 못 온 날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황금휴일에 한번도 쉬지 않으신 정천석교수님, 그리고 예술아카데미와 인연맺은 모든 선생님들, 봉사자들, 그리고 준비해주시고 뒷정리해주는 모든 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구요.

내년에도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 선주민 참여자

### 2013년 다사랑~!!

박봉덕 (다문화예술아카데미 1팀 팀장 : 미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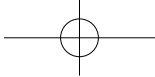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2013년도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곧이어 크리스마스의 흥거움과 한해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기에 올 한해 뜻 깊은 다문화생활아카데미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바쁜 토요일 일주일의 생활전선에서 모처럼 모여 예술 문화를 익히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손을 잡고 달려와 수업에 현장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과의 해후는 올 한해도 봉사와 성과라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의 수업성과인지, 올해는 제법 스케치도, 붓질도, 물감의 채색효과도 수준 있는 작업을 하는 회원들을 보며 기쁜 봉사의 보람을 느낀다.

여전히 성실한 출석으로 미술시간을 행복해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림슈내가족, 부부가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며 핀잔주며 그림을 그리는 필리핀아내 펠라와 임동운 부부, 수준있는 솜씨로 미술실력과 재능을 뽐내는 일본에서 온 마끼, 역시 타고난 소질을 보여주는 중국에서 온 유연연의 자목련화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단의 활달한 성격과 리더쉽은 올해도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수업현장을 만들어주었고 전시중에 적극 참여한 왕숙분과 양도령, 전재은...

바쁜중에도 참여해준 나영씨, 안나, 미가, 박정희...많은 다사랑 회원들과 함께한 보람된 한해였다.



주말 다사다난할텐데 수업에 도움주시는 다문화 가족연구소의 정천석 선생님, 성남문화재단의 문화기획부 직원여러분.. 더운 여름날 수업현장 마무리하시는 조성란 과장님, 늘 업무현장에서 연락과 사업진행과 조정으로 분주하신 김준원 대리님 모두가 올 한해의 역군들이시다.

토요일 귀한시간을 열심히 달려와 주시는 우리 다사랑 봉사 선생님들...

유정희, 이종성, 조진순, 장운아, 구형모, 정영희, 황해옥 선생님들도 감사하다.

한껏 한지공예의 오은진샘, 노래 부르기의 이경이샘...

모두 2013년의 보람된 일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에 이주해온 다문화 가족의 행복이 조그마한 미술교육 봉사에서나마 아름답게 발전하는 시간과 미래의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빌며, 선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주민과의 소통하는 다문화생활예술아카데미의 수업현장이 문화사업의 진정한 교류이길 빌어본다.



## 어깨동무 새동무,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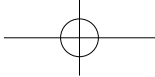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김해수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팀 팀장 : 미술 프로그램)

2013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 수업이 지난 10월에 끝났다. 프로젝트 이름대로 다문화 사람들과 행복한 소통의 다리를 놓자는 취지로 시작된 수업에 사업 2팀의 팀장이었던 나를 포함한 10명의 강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다문화분들께 공예, 한지, 닥종이, 수채화 등을 가르쳤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수업을 끝내고 나니 보람과 아쉬움이 오버랩된다. 첫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열심히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에 서로의 의욕이 한껏 팽배했던 것과는 달리 수업이 진행될 수록 수업참여도가 저조해지면서 맥이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은 인지상정일게다. 물론 그들에게는 피치못할 사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생계를 위한 취업과 육아, 그리고 자녀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본국 방문을 하느라 결석생들이 늘어나면서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과 강사들의 참여도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YWCA측의 담당자들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한 느낌이었다. 우리 강사진들 역시 교육생들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수업준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했던 것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다. 첫 수업시간에 강사들과 수강생들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서로의 소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업내용과 진행방법을 허심탄회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강사들 모두가 아쉬워했으며 취약했던 부분이었다.





회차별 수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준비물을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해 준비했어야 했다. 홍보문제도 강사평가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인원을 확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수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쾌적한 교실환경과 수업시간 분배 계획성, 그리고 수업참가자들의 수준인지를 제대로 평가해 개인별 수준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 잘 관찰되었다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성취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다문화가족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갈등과 고통을 미술적인 치유와 배려로 감싸 안는다면 어느덧 우리 모두에게는 일곱빛깔 무지개다리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 수업을 마치며...

장윤아 (사랑방문화클럽 1팀 미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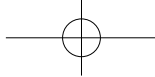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다문화 예술아카데미 미술 수업은 감사와 배움의 연속이었다. 생활 속에서 멋진 풍경이나 사물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을 화폭에 옮기며 행복해 하는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수업 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이 생겼다. 늘 마음 속에 함께해서인지 회원들 모두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난해보다 수업 준비와 그림 솜씨도 더욱 좋아졌고 그 덕분에 나와 회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런 회원들과의 좋은 인연에 감사한다.

첫 수업에 애어컨 바람이 춥다며 한 여름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열심히 목련 꽃을 예쁘게 완성하던 유연연이 생각한다. 완성된 작품을 들고 행복 가득해 하며 작품을 지도해준 선생님과 사진을 찍겠다고 포즈를 취하던 사랑스런 유연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작은 가르침에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직장일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림이 좋다며 부지런히 찾아오는 양도령. 가족 이야기며 생활 이야기 등 여담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 정스러운 양도령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늘 겸손해서 "선생님 잘 못 그려요" 를 연발하면서도 열심히 작품 활동에 애착을 보이던 왕숙분. 그의 예쁘게 웃는 수줍은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림 그리는 기초가 탄탄하여 물감 쓰는 요령, 붓 잡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도와주던 믿음직한 마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 식구들... 진심으로 기쁨 가득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8월에는 열심히 그린 작품들이 성남시청 홍보관 갤러리 공간과 시민회관 사랑방 전시실에서 전시가 되었고, 10월에는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회원들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는 벅차고 흐뭇했다.

박봉덕 팀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 속에서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셀 수 없이 많은 멋진 체험을 한 뜻 깊은 한 해였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 예쁜 시간 만들어 가요~

모두 사랑해요! 화이팅 \*^^\*



## 겨울의 문턱에서

조진순 (사랑방문화클럽 1팀 미술 프로그램)

벌써 장애우와 다문화엄마들과의 즐겁고 재미있었던 세월이 몇년이 지났군요.

처음시작은 내가 과연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며 한주한주 즐겁게 수업을 하자. 하고 나를 세  
뇌시키며 참여를 하다보니 어느덧 서단도, 림슈네도 펠라와 남편도, 유연연, 박정희...등등  
모두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오더군요.

쪽...전시 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내가처음 그림을 걸었을 때의 감동이 생각나더군요,  
그때의 나의감동같이 이들도 성취감과 뿌듯함을 아마 잊지 못할거예요.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우리의 만남은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늘 즐거웠고 보람되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났지만 서로의 안부와 가족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정보도 공유하면  
서..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움도 주면서..상생하는 길이 어떤건지 많이 배우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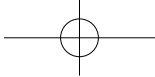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어느 날 서단이 부동산에 관해 물어왔을 때 공인중개사인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작으나마 도움을 준적도 있었  
군요. 우리의 한민족이 되어가는 다문화엄마들한테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마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해 준 성남문화재단에 감사하고..팀장인 박봉덕쌤 너무 애 많이 쓰셨군요.

유정희쌤, 이종성쌤, 장운아쌤, 황해옥쌤, 구형모쌤, 나중에 합류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정영희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또 다른 인연이 올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합니다..  
다문화 화이팅,,,,,  
쌈들 화이팅...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항해옥** (다사랑방문화클럽 1팀 한지 프로그램)

가을인가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더니 어젯밤에는 눈비가 가득 내렸습니다.

을 가을에는 예쁜 단풍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가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공원에서 뒹구는 단풍잎들은 아직도 제각각 아쉬운 듯 뽀뽀하고 있는데 가을단풍들은 아쉬움만 가득히 남기고 하얀 겨울에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서 입고 눈이 살짝 내린 공원길을 걸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과의 만남이 봄인가 했는데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함께 보냈고 아름다운 가을도 함께 지나갔고 이제는 겨울이 왔습니다. 봄에는 처음만나서 서로가 눈마주치기도 어려웠었는데...

두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어린 아가들도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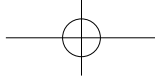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에는 만나면 함께 뛰어놀고 그림도 그리고 누가누가 잘하냐 봉사활동 온 언니 오빠들의 칭찬에 모두가 신이 나서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고 서로서로 경쟁하느라 열심히 노력했고 시절에는 꼬마친구들의 멋진 그림들이 사랑방축제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니 아이들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고 예쁜 아이들의 생각이 가득 담긴 그림에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만히 웃음 지으며 멋진 그림 속으로 들어 가보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말없이 다가오듯이 우리다문화 모임에도 봄이 왔고 이제는 겨울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손잡고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꼬마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주말이지만 빠지지 않고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다문화모임이 벌써 아쉬움을 남기고 수료식을 한다. 니 지나간 가을만큼 많이 아쉽고, 미안하고, 아주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반은 배우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의 예쁜 아이들과 추억을 한가득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예쁜 아이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나에게 더 많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주위에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촌이고 가족이라는 마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는 한해였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다문화가족들과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고 함께해주신 아트센터에 계신분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박봉덕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주민 지원단체 참여자

2013

###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돌아보며



**정천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Rainbow Bridge) 사업으로 진행된 ‘사랑방한마당, 2013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다문화가족 행복한 문화예술놀이터가 벌써 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과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성남YWCA가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행되었고,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지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 1팀, 2팀의 노래강좌, 한지공예, 미술강좌, 탁종이공예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2.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으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주관으로 다문화공연활동, 다문화 노래자랑대회, 세계문화비빔축제, 열린음악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하모니 등의 공연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3. 제7회 사랑방축제에 무지개다리 페스티벌을 경기지역 7개 시군 문화재단이 참여한 공연 발표 및 세계음악, 세계놀이 체험장으로 이루어 졌으며,
4. 경기라운드 좌담회를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제에 따른 패넬로



구성되었고,

5.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경기컨소시엄 자문단과 지역 다문화사업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 다문화가족봉사단과 학생봉사단의 참여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한 사회통합의 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 1.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3년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은 2팀으로 구성하여 1팀은 성남시민회관 시민사랑방홀에서 노래강좌, 한지공예, 미술강좌를 실시하였고, 2팀은 성남YWCA 강의실에서 한지공예, 닥종이공예, 미술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1팀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주관으로 4월 첫째주 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013년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참가 신청과 강좌 안내를 시작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3시간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입니다. 2팀은 5월부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20여명의 문화예술 지도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활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인 수채화 작품들은 제7회 사랑방클럽축제 기간 중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내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를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작품과 더불어 전시를 했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 활동을 많은 관람자들에게 홍보하고 작품의 성과를 칭찬받으며, 결혼이민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통해 성취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 활동의 활성화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찰대학 폴라리스봉사단이 주관하여 다문화가족 68명과 경찰대학 봉사단 40명이 함께 하룻동안 즐겁게 뛰어 놀면서 민속박물관 관람, 사물놀이, 승마놀이, 민속놀이와 조상들의 옛 풍습과 생활상을 게임을 통해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서울놀이마당에서 진행된 다문화와 우리문화의 교류, 세계음식경연대회에 중국전통 무용팀과 몽골전통 무용팀이 공연을 하였고,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청소년 락페스티벌에 베트남 전통무용팀이 공연에 함께 참가하여 청소년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세대간의 나눔과 이해를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에도 희망골 상대원동 시장활성화 사업에 성남시 홍보대사인 코리아주니어빅밴드와 함께 중국 전통무용팀이 공연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부터 세계문화비빔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전통무용 지도교사팀을 운영하여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다문화이주여성들이 5개팀으로 10월 행사에 준비하며 10회 이상 어린이들에게 각국 전통무용을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무용 지도교사들 12명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 전통타악인 다문화 난타팀을 구성하여 하미영 이매춤 원장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송파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열림음악회에 다문화가족이 참가하여 공연자와 봉사단이 합창을 통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에는 용인초등학교에서 3일간 세계문화교실을 몽골, 태국팀과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가 함께하여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세계민속놀이, 세계민속음악, 세계무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에는 성남시청 광장에서 오후에는 세계문화비빔축제와 저녁에는 다문화가족 노래자랑대회인 다드림 페스티벌을 협력하여, 어린이집 유아들이 세계민속의상 패션쇼, 각국 전통무용 공연, 결혼이주여성들의 전통무용 공연, 세계민속놀이, 세계민속악기 체험 등으로 화려하



고 알찬 내용의 다문화 축제가 열려 지역주민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다문화가족노래자랑경연과 전통무용경연대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노래와 장기경연과 9개국 다문화인으로 구성된 몽땅과 케냐 3인조 아카펠라 가수 초청 공연으로 지역주민과 따뜻한 다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사랑의 하모니’ 비전과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에 몽골, 태국 전통무용팀 특별공연과 다문화가족의 공연 관람으로 훈훈한 사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증진시켜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3.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10월 8일~10월 13일)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성남시에서 후원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예술의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의 그림 작품 전시가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회 오픈을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기컨소시에엄에 참여하는 7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간 교류 강화와 이주민 자조모임 간 교류, 이주민 가족의 여가활동 증진 및 상호 이해를 위해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기간 중에 시민문화클럽박람회에 다문화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전통 춤 체험, 다문화공연, 세계악기체험, 세계놀이문화체험 등이 다문화부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단체로는 성남문화재단,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몽골, 중국, 태국,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난타팀과, 3개국의 다문화전통무용 공연과 오산문화재단의 다문화 연극공연, 부천문화재단의 태국 전통춤 공연, 안양문화재단의 유니온 노래단 합창공연,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다문화합창공연, 화성문화재단의 다문화 밴드공연팀이 함께하여 다채로운 다문화의 합창과 공연을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쟁과 화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4. 다문화가족봉사단과 학생봉사단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봉사단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다문화활동에 2009년부터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폴라리스 봉사단, 백석대학교 자원봉사단, 대진고등학교 나눔이 봉사단, 서현고등학교 다알음봉사단, 분당파랑새 학생봉사단은 2년째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WHAF(와프) 드림러 봉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폴라리스 봉사단은 2012년에는 서울대공원나들이, 2013년에는 한국민속촌 나들이를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문화탐방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서현고와 대진고 학생봉사단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블록게임, 미술활동도구, 인형 등을 준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학습지도와 놀이를 통한 돌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드림 오케스트라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업무협약서 체결은 2014년부터 성남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음악인재 양성을 위한 ‘메토벤 바이러스 사업’을 전개하며, 이들의 재능개발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상호협력함으로써, ‘손잡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성남시민회관 시민사랑방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대진고 나눔이봉사단, 서현고 다알음봉사단, 분당파랑새 학생봉사단, 용인외고 WHAF DREAMER 봉사단이 주관하고,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가 주최하여 봉사단이 준비한 학용품, 도서류, 의류, 인형, 모자, 가방, 체육용품 등 500점을 다문화가족과 사랑으로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바자회 자리에서 용인고 WHAF(와프) 드림머 봉사단 4명의 학생들이 우리 전래 동화를 직접 번역하여 출판물을 제작하여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봉사단과 학생봉사단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멘토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업의 바쁜 시간에도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봉사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3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는 성남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는 행복한 문화예술놀이터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과 다문화봉사단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더욱 보완하여 발전적인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과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족과 봉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 참여자

### 대진고등학교 나눔이 봉사단

전지영 (1학년)

'나눔이' 동아리는 내가 직접 성남시민회관에 가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봉사하는 동아리이다. 나는 '나눔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문화 봉사를 경험했다. 동아리 시간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어떻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지 토론했다 하면서 궁리했다.

나는 봉사하러 가기위해 성남시민회관으로 향하는 길이 설레기만 했다. 봉사하기보다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색칠공부, 할리갈리 게임, 비행기놀이 등을 나와 함께 놀던 아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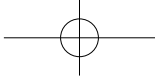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서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아직 5살이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했다. 대신 내가 안아주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즐거운 놀이를



했다.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좋아해주는 아이를 보며 함께하는 동안 나도 행복했다. 3시간동안 하였는데 그 3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버렸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고, 내가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리며 인사를 했다.

다음에 갈 때마다 내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 자신도 성숙해지는 듯 했다. 3주일에 한 번마다 새로운 아이들 또는 이전에 만났던 아이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 앞으로도 다문화봉사를 할 것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6. 5 어느날>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차수진 (1학년)

다문화 가정 봉사 동아리에 참여를 해 온지도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2주에 한 번씩 가다 보니 모든 아이들과 소통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 자신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사실 이 봉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누군가를 가르치는 능력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봉사를 하다 보니 힘든 점도 많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놀아주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자 시간이 아까웠고 그러다 보니 피곤할 때에는 가기 싫었던 적도 있었다.

특히,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 그런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맞춰주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고,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을지 봉사하기에 앞서 막막하기만 했지만, 선배들의 조언과 주변 선생님들 덕분에 쉽게 적응하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도중에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혹시나 다칠까봐 걱정도 많이 되어 놀아주면서 잠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걱정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봉사 동아리를 통해 부모님의 마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가끔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나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겪고 나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니, 특정 과목을 가르쳐야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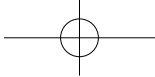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이들에게 앞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성과 살아가면서 반드시 혼자 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동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육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이 봉사활동은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2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과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요즘은 세계화와 개방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도 일자리나 월급문제, 그리고 사회적 인종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부모의 자식들도 학교에서 바르지 않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시선으로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는 따돌림까지 당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언어를 구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싸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외국인들을 좋지 않은 쪽으로 이용하고,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나 또한 이 봉사 동아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인지, 외국인 이주자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되고, 심지어 약간의 거부감까지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봉사에 참여하고 난 뒤,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상처받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던 색안경을 벗어던지니 아이들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봉사를 하며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적은, 활동을 하기 위해 성남시민회관에 찾아갈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해맑게 웃어줄 때, 그리고 나랑 놀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하며 좋아해 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고, 진정으로 봉사에 대한 참맛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놀아준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잘 돌아주어 고맙다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과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솔직히 현재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며, 봉사 활동을 하나의 커다란 일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봉사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 보다 참여해보고 싶었거나 관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간다면 보람도 있고 후회 없이  
재미있게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봉사 동아리를 단순히 시간을 채우고 스펙을 쌓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나 자  
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며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을  
갖게 만들어준 것은 모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고마움을 느끼며  
하나라도 더 그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과 진심으로 대화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고민상담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되  
고 싶다. 아직까지는 아이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 벽을 깨고 진심  
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 놓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민 덩어리를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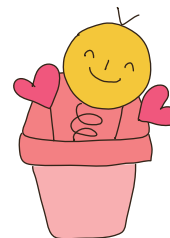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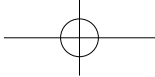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김예슬 (2학년)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주최한 다문화 봉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왔던 봉사를 2학년 때까지 이어서 한 다문화 봉사이다. 아직 리더십이 부족한 나여서 처음에는 어떻게 동아리 임원을 데리고 봉사를 이끌어 가야 될지, 봉사에 참여하는 임원이 없을 때에는 그저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한 봉사를 통해 나름의 노하우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봉사를 통해 다알음의 부장으로서 많은걸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꿈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중학교 때에는 이 직업에 관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여 못했는데 '다알음'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2주일에 한번 구 시청에 와서 돌보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학년 때에는 봉사장소에 오고 가는 것이 귀찮아서 자주 참석하지 않았는데, 2학년 올라와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후 책임감 때문에 봉사를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귀찮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놀아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중에 내가 가질 직업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게 만들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렀다. 같이 놀아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하고, 무엇을 선물해주면 의미 있고 좋아할까라는 고민을 매주 하면서 자장과 함께 생각도 해보고 재료도 구입하여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재료를 사고 무겁게 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처음 봉사 갔을 때는 경험도 더 많고 자주 와서 애들이 잘 따르는 대학생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다 이끌었다. 나는 애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그들의 흥미는 대학생 분들에게 있는듯해서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불임성이 별로 없어 혼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명한명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 다알음 에게도 애들을 보살펴주는 기회도 왔다. 그저 놀아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잘못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착한 일을 했을 때에는 칭찬을 해줘서 좀 더 도덕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봉사시간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봉사는 한 달 동안 탄천 종합 운동장에서 봉사를 맡았을 때였다. 이 봉사에서는 난타를 배우는 다문화 아주머니들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는데, 구 시청 봉사보다 아이들이 적어서 각각 한 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정도 많이 들었다. 비록 2시간이란 시간이었지만 같이 뛰어 놀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나까지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가 끝나서 갈 때에는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2년 동안 이 봉사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해 있던 편견들도 다 없어졌다. 청소 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 사람들과 직접 만나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뿌듯했다. 이제 고3이 되어 봉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매우 슬프다. 하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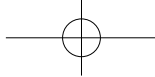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김 지 우 (1학년)

올해 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1월부터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많은 도전들을 해왔다. 파격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혹은 위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말이다. 서현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 동아리 '다알음'의 일원으로써 봉사활동을 한 것도 그런 나의 도전들 중 하나이다. 다알음 동아리가 만들어진 재작년 말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성남시민회관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8개월 간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에서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 전통 공예, 노래 등을 배우시는 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같이 공예 배우기를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대체로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사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매달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원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것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나의 일곱 살 난 사촌동생도 어색하게 대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나도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전문적인 보육교사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봉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일곱 살 사촌동생과도 전보다 더 친근하게 놀아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얻는 보람도 느꼈다. 한 번은 어떤 일본인 분의 어린 아들을 돌보아 준 적이 있었는데, 봉사가 끝난 후 그 분이 밝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셨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그때 큰 보람을 느꼈다.

이 봉사활동의 특별한 점은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들을 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조금 다른 외모는 그 외모대로, 조금 다른 말투는 그 말투대로 익숙해져 갔다. 일상에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문화 이해 활동을 잘 이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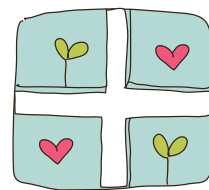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이정환 (2학년)

2주에 한 번씩 3시간씩 하던 봉사도 끝이 났다. 1학년 때부터 해오던 봉사였기에 끝나고 나서 기분이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1학년이었을 때는 중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였다. 외국인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동안 우리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놀아주는 역할이었는데 같이 놀 공간과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막막했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봉사 장소를 구 성남 시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도 있고 장난감과 여러 가지 미술 도구들도 있어서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 또 우리 동아리에서 직접 아이들과 같이 할 프로그램 짜서 같이 해보는 기회도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이 제일 재미있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잊고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문화 아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순수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시선을 받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다. 또 생각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좀 더 다문화 가정에 신경을 써주고 국민들도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차별 없이 대해주었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 용인외국어고등학교 WHAF(와프) 드리머 봉사단

최유경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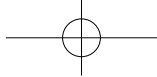
다문화 봉사를 시작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다. 처음 갔던 날이 어제와도 같은데 어느새 나는 고등학생이 돼 있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훌쩍 자라 있었다. 지금까지 봉사를 해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꼽자면 단연 심선이와 효명이 남매와의 추억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이지만 이렇게 친해지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누나인 심선이는 그래도 붙임성이 좋은 아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지만 효명은 내게 쉽사리 마음을 열려 하지 않았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말도 잘하지 않아 나는 그저 효명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 집안에서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기만 하며 자라온 터라 아이들에게 언니, 누나, 때로는 부모님이 되어 줘야 하는 그 자리 자체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봉사하는 것이 그저 힘겹게만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명에게 잘 대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문득 '내가 지금 효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 있을 때에는 나도 함께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생각을 바꾸고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효명의 생각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여줬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효명은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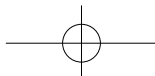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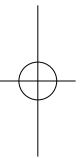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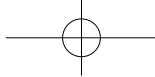
멀리서도 나를 보면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으로 나에게 달려와 안겨왔고 헤어질 시간에는 가장 아쉬워하고 쉽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효명이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만들기 시간에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정말 멋지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금방 블록으로 표현해내기도 했다. 내 작은 변화가 내 자신 뿐만 아니라 효명이에게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했다.

이렇게 내가 효명이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모습에 심선이가 토라질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선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이내 심선이는 누나로서 동생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보듬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자신의 동생을 누구보다 생각해주고 챙기는,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누나가 된 심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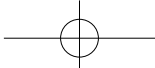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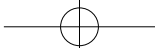
나와 심선이, 효명이 남매와의 관계는 봉사에서 만나는 사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방학 때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보거나 놀러 가는 등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봉사를 떠나 정말 친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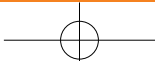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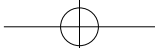
이 봉사는 나에게 '복지'라는 꿈을 심어 주기도 했다. '다문화'라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것을 경험해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복지가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에게 있어 복지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태까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느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복지란 '지금과 같은 행복과 순수함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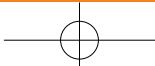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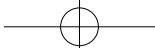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내게 마음을 완전히 열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서로와 맞춰나가고 부족한 면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은 나 자신과 아이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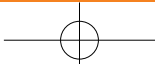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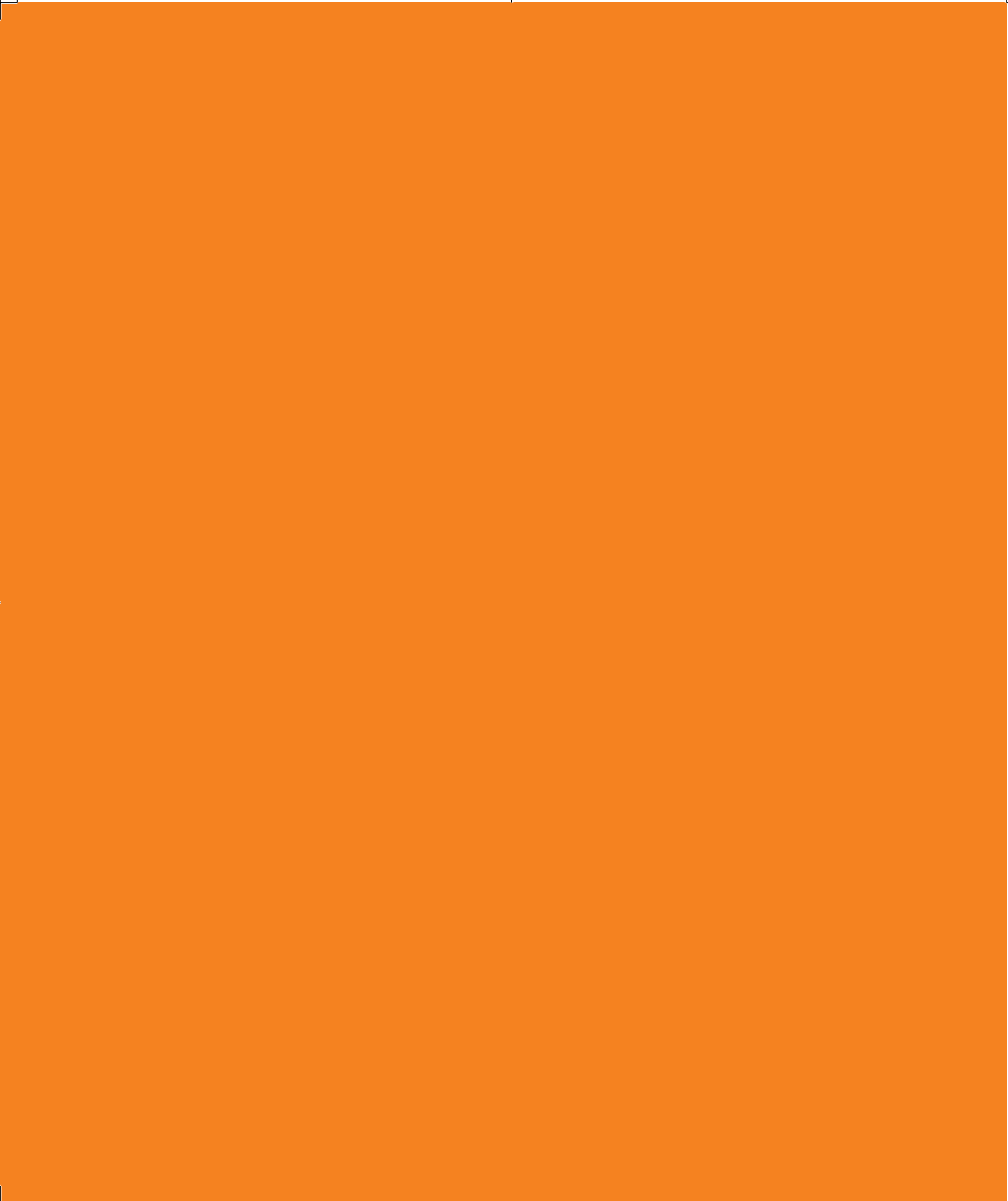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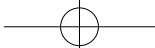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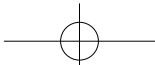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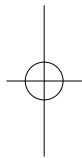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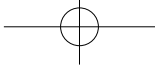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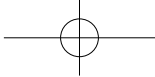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